



울어버린 마린보이

2012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 출전한 마린보이 박태환이 29일 새벽(한국시각) 런던 올림픽파크 내 아쿠아티크센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2위를 기록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이 결승전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예선→실격→반복→결승→은메달...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

“(박)태환이 괜찮아요. 덩달해하고 있어요.”

런던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영국 런던의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만난 SK텔레콤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박)태환이가 물론 오후에 제대로 쉬지 못해 힘든 면이 있겠지만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 이해하면서 덩달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오전에 열린 예선에서 조 1위를 하기도 부정 출발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를 받아들였던 박태환은 이후 관전이 반복돼 극적으로 결선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이나 정상적으로 결선에 올라갔을 때와 달라진 훈련 등으로 볼 때 결선 전망이 밝다고 볼 수는 없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51분에 시작된 결선을 앞두고 나타난 박태환의 표정은 다소 긴장한 듯 보였다. 한 손에 수건을 들고 헤드폰을 끼고 등장한 박태환은 곧 출발대를 달고 한 번 어루만지는 것이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부정 출발과 같은 해프닝이 없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했다.

보통 선수라면 출발 반응 속도가 예전보

다 느려질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0.67초의 반응 속도로 8명 가운데 가장 빨랐다.

말 그대로 ‘쾌조의 스타트’를 보인 박태환은 전체 400m 가운데 300m를 줄곧 앞서 헤엄쳤다. 레이스의 절반인 200m까지 1분50초20을 기록해 순양을 0.32초 차로 앞선 박태환은 그러나 이후 순양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250m 지점에서 2분18초47을 기록했으나 둘의 격차는 0.03초로 줄었고 300m를 찍었을 때는 2분46초63으로 순양을 겨우 0.01초 앞섰을 뿐이었다.

키 198cm로 박태환보다 15cm나 큰 유리한 신체 조건을 앞세운 순양은 레이스 후반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했다. 결국 350m 지점에서 순양이 3분13초74를 찍어 박태환을 0.9초 차로 따돌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50m 구간에 들어서며 순양이 박태환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고 박태환은 결국 1.92초 뒤진 2위로 결승점에 도달했다.

금메달을 확인한 순양은 물을 크게 튀기고는 큰 소리로 포효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반면 박태환은 “같은 아시아 선수인 순양

체육회 ‘오심 대책’이 은메달 지켰다

연맹에 곧바로 이의신청

대한체육회(KOC)가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각 종목 대표팀 코칭스태프에게 강조한 오심 대응법이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3·SK텔레콤)의 은메달을 지켜냈다.

KOC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의 김동성,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체조의 양태영 등 오심 때문에 메달을 사실상 뺏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각 종목 코칭스태프에게 오심이 나왔을 때 대응 방안을 미리 숙지하도록 했다.

이 우승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공동취재구역에서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수영 인생에서 오늘 같은 상황이

종목별로 관정에 대해 소청하는 절차를 매뉴얼로 만들어 지급하며 “미리 소청 절차를 확실히 알고 가야 오심이 나와도 억울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 또 벤치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번 경우에도 안종택 경영대표팀 감독이 바로 국제수영연맹(FINA) 상소심 판에게 실격 처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했다. 경기 후 30분 이내에 해당 팀 감독이 100달러를 내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이의 신청이 가능했다.

하루에 다 일어나다 보니 심적으로 좀 힘들었다”는 박태환 자신의 말처럼 그는 이날 각종 해프닝 속에서도 올림픽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뤄냈다.

마지막 한발 10.8 “금이다”

사격 진종오 한국에 첫 금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오(33·KT)가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진종오는 28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런던 그리니치파크의 왕립 포병대 기지 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100.2점을 쏘 본선 점수 588점과 합계 688.2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종오는 2004 아테네올림픽 때 이 종목에서 5위에 그쳤고 2008년 베이징 대회 때는 광웨이(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땀다. 그러나 진종오는 세번째 도전 만에 금메달을 거머쥐고 앞서 두 번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4년 전 베이징 대회에서 50m 권총 금메달을 땀던 진종오는 이날 우승으로 한국 사격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앞서 올림픽 이 종목에서 첫심 부족으로 매번 우승을 비껴갔던 진종오는 이번에는 가장 마지막 순간 저력을 발휘하며 정상에 올랐다.

본선에서 588점을 기록, 2위 광웨이(중국)보다 2점차로 앞서 1위로 결선에 오른 진종오는 결선 10발 중 첫발을 10.6에 명중하며 산뜻하게 첫발을 내디뎠다. 5번째 격발까지 모두 10점대를 뚫은 진종오는 2위 광웨이와의 점수차를 4.4점으로 벌리며 그대로 우승을 굳히는 듯했다.

하지만 눈앞에 다가온 우승에 오히려 긴장한 탓인지 여섯번째 발에서 9.3을 쏘더니 7번째 격발에서는 9.0이라는 점수를 기록했다. 마지막 세발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진종오가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감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력을 가다듬었지만 8번째와 9번째 격발에서마저 9점대를 쏘고 말았다.

마지막 10번째발을 남겨두고 진종오와 테스코니의 차이는 1.3점. 또다시 9점대를 쏘면 우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진종오는 침착하게 방아쇠를 당겼고 전광판에 이날 결선 최고 점수인 10.8점이 뜨면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졌다.

4년 전엔 4초 이번엔 1초

남현희, 배달리에 또 무릎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펜싱 사상 처음으로 두 대회 연속 메달을 노린 남현희(31·성남시청)의 꿈을 가로막은 것은 ‘천적’ 발렌티나 베잘리(38·이탈리아)였다.

베잘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플뢰레 개인전 결승에서 종료 4초를 남기고 역전 유효타를 성공시켜 금메달을 눈앞에 뒀던 남현희를 은메달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3~4위 결정전에서 남현희와 만난 베잘리는 종료 1초를 남긴 상황에서 득점,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가더니 기어이 남현희에게 다시 패이폰 역전패를 안겼다.

베잘리는 20년 가까이 펜싱 여자 플뢰레를 지배해 온 절대 강자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서 처음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벌써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펜싱 플뢰레에서 세 대회 연속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한 선수는 베잘리가 사상 처음이다.

여자 펜싱 선수로는 이미 전성기를 훌쩍 넘긴 나이이지만 여전히 넘치는 체력은 물론이고 현란한 기술, 냉정한 판단력, 불타는 승리욕까지 선수에게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춰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베잘리의 최대 라이벌이 남현희였다.

국제펜싱연맹(FIE) 여자 플뢰레 랭킹에서 1위(베잘리)와 2위(남현희)를 유지하던 둘은 주요 대회 길목에서 여러 차례 부딪혔다. 그러나 대부분 웃는 쪽은 베잘리였다.



남현희가 펜싱 플뢰레 준결승에서 패한 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이후 국제펜싱연맹(FIE) 상대전적에서 베잘리는 1승9패로 남현희에게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베잘리는 대신 8월2일 열리는 여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동료들과 힘을 모아 6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공교롭게도 남현희가 이끄는 한국 여자 플뢰레 대표팀은 계속 승리할 경우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와 만나는 꼴이다.

태극전사 경기 일정

- ◇30일 (한국시각)
 - ▲16시30분 남자 하키 예선 B조 1경기 대한민국 vs 뉴질랜드
 - ▲17시 사격 남자 10m 공기 소총예선 김중현, 한진섭
 - ▲17시30분 유도 남자 -73kg급 왕기춘
 - ▲17시44분 유도 여자 -57kg급 김잔디
 - ▲19시15분 여자 핸드볼 예선 B조 대한민국 vs 덴마크
 - ▲19시30분 여자 배구 예선 B조 대한민국 vs 세르비아
 - ▲20시30분 유도 여자 58kg급 양은혜
 - ▲20시30분 배드민턴 혼합 복식 예선 C

- 조 한국(이용대·하정은) vs 덴마크
- ◇31일
 - ▲03시00분 유도 남자 62kg급 지훈민
 - ▲03시09분 배드민턴 여자 복식 예선 C 조 대한민국(김민정·하정은) vs 호주
 - ▲17시42분 배드민턴 혼합 복식 예선 C 조 대한민국(이용대·하정은) vs 인도
 - ▲18시05분 유도 남자 -81kg급 김재범
 - ▲19시15분 남자 핸드볼 예선 B조 대한민국 vs 헝가리
 - ▲20시00분 요트 남자 RS : X 윈드서핑 이태훈



화려한 개막식 지구촌 최대 스포츠축제가 될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이 28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북동부 리벌리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폭죽이 터지며 개막식을 축하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05개 나라에서 1만6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6개 종목에서 총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연합뉴스